

인문사회과학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과학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문과학의 핵심을 이루는 10개의 학문은 행정학, 인류학, 고고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심리학, 종교학, 정치학, 사회학이며, 철학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 학문들은 주로 국·공립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교육이 전통적인 학문과 연구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오늘날 이 분야의 학문적 영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매우 방대하여 이 영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서 하나의 학문만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학에 능한 라틴 문헌학 전문가를 보는 것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 정치, 환경적 위기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 복합적인 능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요구한다. 과학과 사회과학 간의 지식 교차가 가능한 것은 지식이 풍부해지는 원천이다(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나 미셸 세르(Michel Serres)와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들은 그들의 저술을 통해 철학, 사회학, 역사, 과학 및 기술, 의사 결정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류학자이자 인류학적인 전통을 타파한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세계의 서양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 조르주 뒤비(Georges Duby) 등은 유럽인들이 그들의 과거와 다른 대륙 사람들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폭력과 희생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우리를 둘러싼 기호들에 대해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관심이 많은 교수들로, 이러한 관심의 기저에는 인문사회과학이 존재하고 있었다.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인문사회과학은 대학이나 고등사범학교(ENS)와 같은 그랑제꼴에서 배울 수 있다. 철학은 학생들이 독해, 분석, 추상화, 논증 능력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인 능력도 습득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 학문을 통해 역사, 과학, 예술, 정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며, 전반적인 교양을 두루 익힐 수 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독일어 또는 영어와 같은 언어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사회학, 법학 또는 문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 학문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

신학은 신 또는 신적 존재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성찰력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은 스트라스부르 국립대학 및 로렌 대학을 비롯하여 카톨릭 대학들과 특정 연구소에서도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 세계와 인간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지리학**은 인류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이 학문은 지형학, 기후학, 인구학 등 많은 세부 전공으로 나뉜다. 오늘날에는 정보지리학이나 지리적 마케팅 기법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과 직업들이 이 분야를 번모시키고 있다. 일부 전문화된 엔지니어 학교 및 국·공립 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에 이르기까지 관련 학업을 할 수 있다. 졸업 후, 교육 분야에서 도시계획, 토지정비, 지역개발, 환경 또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만약 **역사학**이 지리학과 마찬가지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의 독보적인 학문으로 남는다면, 이 학문은 정보처리나 위성사진을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 하드 사이언스 등에 활용됨으로써 현저하게 진보할 것이고, 이 학문의 자료를 문화재 보존, 기록보관학, 의학, 전략 분야와 같은 연구 분야의 자료와 접목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인문과학 학문은 5년(석사)이나 그 이상의 학업이 요구된다. 교육, 저널리즘, 미디어, 문화, 문화재 관련 직업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언어에 능통하고, 역사학-미술사, 역사학-법학 같은 이중전공을 하는 것이 이후의 취업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고, 파리와 앙제 카톨릭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도 접할 수 있다. 심리학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석사(bac+5, 인턴쉽 포함)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물학 및 통계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의 습득도 매우 중요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창설한 학문인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을 포함하는 정신현상의 이론적 모델과 무의식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수한 임상분야로도 간주되고 있는 정신분석학은 몽펠리에 대학, 스트라스부르 대학, 파리 5대학, 파리 7대학, 파리 8대학 등에서 공부할 수 있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학** 및 **인류학**, **민족학**, 즉 한 집단 안에서 또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반응하는 연관성과 사회현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 학문들은 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학사 취득 후 도시계획, 지역사회 및 도시개발, 편집, 마케팅, 작업관리나 인적관리를 전공하는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다. 학사 과정의 연장선인 전문 석사와 연구 석사는 노동, 도시환경, 인구이동, 가족, 법, 정치, 스포츠 사회학 등 수 많은 세부영역으로 나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역사,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언어학, 심리학, 언어과학, 인구학, 인지과학, 정치학, 철학 및 수학 등의 여러 학문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독특한 교육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EHESS라고 불리는 고등사회과학연구소로서 대학은 아니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럽 연구의 큰 축을 이루는 47개의 연구소 안에 300명의 교수 및 연구원, 3,000명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며,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유럽법문화철학 등의 유럽 박사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유용한 사이트

- **ABG 베르나르 그레고리 협회**
(박사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기관)
www.intelligence.fr
- **국립기술연구협회(ANRT)**에서 준비되는 논문은 심리학, 사회학, 문학을 포괄하는 인류에 관련된 분야이며, 이 논문 중 15%는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www.anrt.asso.fr/index.jsp
- **CAIRN(174개의 인문사회과학 잡지)**
www.cairn.info
- **국립고등과학연구소의 인간 및 사회과학과**
www.cnrs.fr/inshs
- **고등사회과학연구소(EHESS)**
www.ehess.fr
- **국립지리연구소**
www.ign.fr
- **국립인문학연구소**
www.ined.fr
- **Persée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과학잡지 전자발행)**
www.persee.fr
- **인문사회과학 잡지 협회**
www.revues.org
- **인문과학 잡지**
www.scienceshumaines.com
- **파리 정신분석학 협회**
www.spp.asso.fr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coree.campusfrance.org에서 « 전공별 학교 리스트 검색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을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학사 Licence, 석사 Master, 박사 Doctorat)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전공을 보유한 프랑스 학교 및 세부 전공을 검색할 수 있다.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사이트 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